

임용시험 후기

2002학번 김보미

응시지역: 광주(2005년 12월)

근무학교: 화정중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쓰긴 하지만 벌써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잊어버린 것도 있고..쭝 쭝 스럽기도 하네요..^^;;

암튼 저같은 경우는...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어요..

1월부터 스터디를 조직해서 함께 TBP랑 PLLT를 봤었던거 같구 동시에 인강을 들었는데 박현수팀강의를 들긴 들었는데요 김영분 쌤것은 저한테 잘 맞지 않아서 영어학은 아예 안들었던 거 같아요;;

저는 선택스 수업도 못 들어서 영어학부분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한 셈이네요..

암튼 그렇게 전공은 준비하구 교육학은 전태린쌤 테입으로 들었는데요

인강은 업뎃하는 시간도 걸리고 내 맘대로 진도를 나갈수가 없으니까 테잎이 더 공부하기 편했던거 같아요 공부하는 장소에도 상관없고 하니까요..

그렇게 겨울방학은 보내고 개강을 하고 부터는 제가 수업을 8개나 신청해 둔 상태여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비교적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사대 정독실을 다녔기 때문에 아침 9시정도면 와서 아침에는 교육학과 일반영어, 오후랑 밤시간에는 영어교육학 공부를 했었어요 교육학은 테잎으로 한번듣기만 했기 때문에 다시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3~4월이후부터는 감지 써가면서;;외우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외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굳이 쓰면서 외우진 않아도 될듯해요;;^^

교생때는 제가 중학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빴어요 거의 개인 공부는 못했구요-

그치만 지금 생각하면 교생 때에는 교생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2차 준비하는데다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저처럼 나중에 중학교로 발령나실 경우는 학교사정 파악하는데두 좋았던것 같구요

본격적인 공부는 교생이 끝나고 7월정도부터 였는데요-

이 때부터 선택스를 해야 겠다 싶어서 차미아팀 강의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들었어요

심화반 교재가 원서를 짜집기 해 놓은거 였는데 phonology 부터 semantics까지 꼼꼼하구 설명이 좋아서 혼자서도 선택스를 공부하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박미정 선생님것은 안들었어요 저한테 잘 안맞아서요;;)

그리구 방학때 다시 스터디를 조직했는데요 TBP랑 PLLT를 한과씩 정해서 돌아가면서 문제 내오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꼼꼼이 읽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르는게 나오거든요-그래서 좋았던거 같구..동시에 TPLT랑 AMLT를 읽었어요 시험볼때쯤에 교육평가원선생님이 강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서에 나오는내용보다는 형평성을 위해 아무래도 타교수법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기본서두 충실해야겠지만 타교수법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아요- TPLT는 그림도 있고 교수법마다 수업진행과정이 자세히 나와있고 쉽게 되어 있어서 빨리 읽긴 좋지만 AMLT는 조금 딱딱하니까 시간을 약간 길게 잡고 읽는게 좋을 듯 싶어요-

또 방학 때 프롬킨 책(Introduction of language)을 읽었는데 다른 인강이나 인강교재가 좀 단편적인 내용중심인데 이 책은 죽~설명식이라서 암기보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읽으면서 일

만영아도 듣고해서 참 좋았어요- 시험 준비하면서는 몇번정도 통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semantics부분은 다른 책에 비해 아주 자세한 편이라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진 스타디 애기구요 스타디를 하다보면 해임감이 생기니까 좋지않은데 너무 스타디에만 묶여서 개인 공부를 못한다면 권하고 싶진 않네요- 기간은 경우는 많하니까 스타디하고 함께 개인 공부를 했어요 사실 스타디를 준비하면 자연스런게 개인공부는 되는데 교육학이랑 일반영어가 소중해 지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독선에 오면 오전 8:40~9:30까지는(사실 이렇게 일찍 온건 얼마 안돼요...) 일반영어(저는 케빈선거 새벽특강을 하루에 두개씩 들었어요. 이런 한 8월부터 모의고사 풀기 전까지 꾸준히 했던 거 같아요)를 하고 이후부터 정독하기 전까지 교육학공부하고 했어요.

정신먹고물아와서는 스타디 준비를 했죠- 저희 스타디가 앞에 말한 것처럼 기문서랑 타교 수업책이랑 새벽특강문제랑 포괄된채로 다 봤었으니까 따로 개인공부계획필요가 없이 스타디 다 진도만 따라가면 됐었거든요...그렇게 생각하면 스타디는 사람들이 좋을 듯해요. 그 이상으로 가면 안해온 사람이 있을경우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씩-알든 그렇게 하면서 9월달까지는 저희 스타디멤버중 하나만 영교수님 신택스 수업을 들은 상태라 그분이 신택스 책을 보고 완벽정리를 해오셔서 그걸 복사해서 잠깐 봤었구요- 이제는 서서히 문제풀이를 할때다 찾아서 EBS문제집을 사서 스타디 시간에 나누어 풀었어요 이때쯤엔 이미 TBP랑 PLIT를 몇 번 본 상태라 이때부터 돌아가면서 blank를 풀어서 문제를 풀었구요. 매일매일 새벽특강도 풀어서 어려움부분 같이 해석해보고 하는것도 했어요.

10월달까지 이리식으로 계속했었구 나중에! 035기문서에 영어학부분을 혼자 공부했었는데 기간서도 정리가 잘돼있어서 전 참 좋았더라구요...)(인강을 어떤 걸 들을지는 본인의 스타일이지만요)그러구 마지막에가서는 모의고사랑 박원수 문제풀이반 문제를 풀었어요-그리고 가요하면 여러사람들이랑 다들 모의고사를 신청하셔서 공유하시는데 좋아요...학원이 선생님을 마다 강한 분야가 따로 계시니까요-~

그리고 다들 문틀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떤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지 생각해보고 자료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도 자료요-자료가 있으면 되도록 많이 공유하는게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서로간에 좋은 것 같아요...~!~!~! 앞들 전 그렇게 몇가지 얘기해보고 한 것이 비슷하게 문제에 나오게 있었네요... 특히 나 학교문법부분은 워낙에 광범위하고 다들 공부하다보면 소홀해지기 쉬운부분인데 그런부분들이 특히 더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문법부분은 한두문제씩은 꾸준히 나오는 편이라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어교육학과 문하시아의 관계가 미묘해서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아예안나온다고 할순 없지만 소절이나 긴 문단작품의 경우는 거의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시에서 나오기가 쉬운 것 같던데 저는 2학기때 이숙단교수님과목-영미시의 이해를 들었는데 그때 배웠던 시가 시험문제에 나와서 깜짝놀랐습니다-~!~! 학점이 다 왔다면 청강으로 들어도 도움이 꽤 되는 수업관아요-문법부분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2학기때 안병규교수님과목-영어교육평가를 들었는데요- 교재가 language assessment인데 이책이 나온지 올해로 3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전 전 더 평가가 중요해질 거라고 학적선생님들도 말씀하시더군요- 올해는 교육학자식만으로도 볼수 있는 간단한 평가관련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든 모르니 이제라도 정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누 한번 다 읽어보려고 했지만 사실 시험달짜가 급박하게 돌아오는바람에 정독을 한 과는 마지막 alternatives in assessment 부분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T.T

아!그리고 마지막에 과에서 하는 특강은 꼭 들어보셨음 좋겠어요..사실 임용시험이 소수점차
이로 당락이 결정나는거 같아요..그때 교육평가원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하실 때 시험문제에
답을 어떻게 쓸지-예를 들어서 시험지시문에서 칸자수에 제한을 두었을 때 어느정도까지
써야 감점을 안당하는지 그런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채점기준같은 세부적인 걸 알순 없었지
만 내쫄 답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또 이홍수 교수님강의도 들었었는데 마지
막에 정리해 주신 프린트가 총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었어요,,그래서 시험보기 전날에 봤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시험을 한달쯤 남겨두고는 교육학이랑 전공 모의고사문제 풀이를 시간맞춰서 했는데
요-이전 실제 시험시간에 맞추어서 진짜 시험보는 것처럼 푸는게 좋아요.. 시험날 기량이
최대한 나오려면 미리 몸을 그 시간에 익숙하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어느 선배님이 말씀
해주셔서요^^

마지막 2주일을 남기고서는 일주일 일주일씩 잡아서 찢주는 교육학 총정리,둘째주는 전공
총정리를 했었어요..교육학은 큰 단원으로 두 단원씩 잡아서 공부하는게 좋아요 예를 들면
한국교육사&교육행정 이런식으로요..총정리 할때는 그동안 사둔 기본서만 보지 마시고 교육
학강의선생님강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새로 올라온 자료가 없나 꼭 살펴보세요-교육학은
뚜렷히 정해진 범위가 없고 해서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특히 교수
모형이나 협동학습,개별화학습모형은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
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총정리는 각자 정해진 범위를 공부해와서 스터디 멤버끼리
말로 해보는게 좋은 것 같아요..서로 잘못알고 있었던것도 다시 알게 되고 모르는것도 서로
알려주고 말로 하다보면 잘 외워지고하거든요..

전공총정리는 사실 너무 급박해져서 결국 개인공부로 돌아갔는데요..저는 모의고사 틀린부분
을 다시 체크해보고 i035기본서로 쪽 영어학을 다시 정리했구요 그때 마침 스터디 멤버 두
분이 Grammar in use를 훑어보면서 나올법한 학교문법을 정리해주셔서 그것도 살펴보고,
신텍스가 너무 걱정돼서 이전 기출문제풀이를 오려서 노트에 붙이고 봤었어요..아마 동사의
유형에 관한거였던 듯 한데^^;; 사람마다 각자 어렵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문제를
노트에 붙여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영어학같은 경우는 나온 부분이 다시 안나오고
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그리고 마지막에 EBS문제 틀린부분만 다시 봤었어요- 이번에 나온 문제랑 비슷한게 하
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아무튼 꽤 도움이 되니 풀어보셨음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시험공부 이야기인데요..글이 너무 두서가 없네요..ㅠㅠ

기억나는데까지 최대한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글까지 남기게 될 줄 몰랐는데..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싶네요..
모두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음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